

'피지컬 AI' 시범사업, 전북대가 주도

올해부터 대학 내 창조 2관 내 1000여명 실증기반 인프라 구축

내년 완주 이서캠퍼스에 5만5000평 규모의 전용 캠퍼스 조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P&C)' 시범사업을 주도한다. 이 사업은 물리적 동작이 가능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실증하는 국가 단위의 대형 프로젝트로, 전북은 22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9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양오봉 총장은 전북 피지컬AI 생태계 구축의 총괄 책임을 맡아 실증부터, 인제양성, 산업화 등의 전 과정을 선도한다. 피지컬 AI 기술을 전복이 선행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실증 단계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참여 기관 간 조율, 공간 인프라 확보, 전용

캠퍼스 조성 등의 모든 실무 과정을 이끈다.

현재 양 총장은 창조 2관에 1,000여명의 실증기반 인프라 조성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곳에 1차로 로봇 기반 피지컬AI 기술 실증 공간을 구축하고, AI산업용 로봇 기술 개발 및 테스트 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완주 이서캠퍼스를 개발해 5만5,000평(약 18만㎡) 규모의 피지컬 AI 전용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에는 전북대 산업을 로봇 AI를 비롯해 현대차 피지컬AI 캠퍼스, 네이버 피지컬 AI 캠퍼스 등이

집적화 된 '신학년 피지컬 AI 벨리'가 만들어진다.

양오봉 총장은 "피지컬AI는 생성형 AI를 뛰어넘는 AI 기술의 정점으로, 세계 어느 국가도 주도하지 못한 분야"라며 "전북 피지컬AI 생태계 구축의 총괄 책임자로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주권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특히 "설계부터 실행까지 모든 단계를 전북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성공 여부가 전북대의 의지와 실행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북대가 중심이 돼 전북을 세계적인 피지컬AI 전진기지로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유치에는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정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부안에서 빠져 있던 피지컬AI 예산 229억 원을 2차 추경에 반영시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었다.

정 의원은 "전북 피지컬AI 사업은 설계부터 실증까지 전주기 체계를 갖춘 최초의 국가사업"이라며 "전주가 AI 생태계의 본보기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는 전북의 생존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 주권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며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로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위원회 개최

현장실습위원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창조나래 5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장실습위원회는 직업교육 전문가, 직업계고 교원, 기업체 관계자, 노무사, 학부모 등 16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연간 10차례 정기적으로 열린다.

이는 실습 안전 발생 시 수시로 개최되며, 실효성 있는 현장실습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 심의의 기구다.

이날 현장실습위원회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지침 개정 △선도기업 적합성 심사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기관 승인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선도기업 인정 절차는 하이파이브(HIFIVE) 시스템 등록, 기업 현장실사, 서면심사 등을 거쳐 △직무 적합성 △교육 여건 △산업안전 수준 등을 엄정하게 평가한다.

특히 올해부터 실습 전 교육 강화, 실습 중 점검 확대, 실습 종료 후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학생의 안전 확보와 실습 효과 제고를 위한 실천적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분형식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현장실습위원회는 현장실습에 대한 학교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현장실습이 학생의 역량을 키우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2025 지역교회 연합 성경 세미나 28일 개최

연합 성경 세미나 28일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오는 28일 은누리홀에서 '2025 지역교회 연합 성경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스터서로 읽는 하나님의 정미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지역 교회의 연합으로 신학에 숨을 불어넣고, 묵화에 생기를 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지역교회 교인이나 목회와 성경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총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전주대학교 선교지원실(063-220-2130)로 하면 된다.

한병수 선교부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묵화의 본질을 깨닫고 신학에 요긴한 탄알을 장전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9일 전주 남부시장 내 '모이장'에서 로컬창업자 육성 거점인 'JB로컬스타트업빌리지'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컬창업자 육성 거점 '문 활짝' | 전주대 'JB로컬스타트업빌리지' 개소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김상진)은 9일 전주 남부시장 내 '모이장'에서 로컬창업자 육성 거점인 'JB로컬스타트업빌리지'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진 창업지원단장(전주대, 로컬콘텐츠중점대학 사업 총괄책임자)를 비롯해 김시열 교수(전주대 로컬벤처학부장), 서나인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신유정·최서연 전주시의원, 오귀성 회장(남부시장상인회), 그리고 입주 창업팀과 유관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실무책임자인 전주대학교 김시열 교수의 'JB로컬스타트업빌리지'의 개요와 운영 방향에 대한 소개, (주)크립톤 오민정 팀장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석자들이 함께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다.

김시열 교수는 "로컬창업은 지역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전주대학교는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을 통해 예비창업자 발굴부터 창업 안정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역 IP 기반의 로컬창업 모델 도출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JB로컬스타트업빌리지"가 이를 위한 전진기지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민정 팀장(크립톤)은 "입주 팀을 대상으로 실전형 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IP, 시제품 제작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인큐베이팅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창업팀이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부터 시장분석, 피칭 전략 수립, 그리고 사업과 아이디어의 실질적 시장성 검증 등 창업자로서의 실질적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남부시장 내 '모이장'을 포함해 총 4개소의 창업 거점 공간(남부시장 모이장 거점 공간, 웨딩거리 거점 공간, 동근숲 거점 공간, 전주대학교 거점 공간)을 기반으로 로컬창업 지원을 본격화했다.

김상진 교수(창업지원단장)는 "JB로컬스타트업빌리지"가 지역의 로컬창업을 이끌어 갈 예비창업자 육성의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며 "지역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주대학교가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학생 진로 탐색·취업역량 강화 '맞손'

전북대 간호대학,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약

전북대학교 간호대학(학장 정석희)은 지난 8일 간호대 교수회의실에서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양희옥)와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과 기업 채용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간호대학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지원체계 구축, △진로설계 및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직업지도, △취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에 공동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석희 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간호대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취업역량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학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이에 양희옥 관장은 "양 기관이 함께 만들어갈 실천적 취업지원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건 의료 및 돌봄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XR 기반 이차전지 고급 실습 연수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7~8일 양일간 XR 기반 이차전지 실습 및 신장비 활용 교육 고급과정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이차전지 산업의 최신 기술과 제조공정을 교직원 및 직접 체득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연수에는 전주비전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교직원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첫째 날에는 XR(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주요 생산 공정과 기술 동향을 실습 중심으로 학습했다. 참여자들은 몰입형 가상환경 속에서 실제 산업 현장에 준하는 제조공정 체험을 통해 직무 이해도를 높였다.

둘째 날에는 올해 1차년도 사업을 통해 도입된 이차전지 제조공정 신장비를 활용한 고급 실습 교육이 진행됐다. 교직원들은 정비 운용법부터 공정 운용까지 이차전지 전반에 걸친 전문

교육을 이수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참여 교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공정 이해도는 물론,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기술 역량과 인재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를 현장 중심 수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효식 이차전지신사업선도전문대학 사업단장(신재생에너지과 교수)은 "이번 연수는 교직원의 실무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학생들에게 전문가 수준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였다"고 했다. /장은성 기자

마약 중독의 고통·회복 과정 '단테의 신곡'에서 길을 찾다

우석대 신태용 명예교수, 책 출간

우석대학교 신태용(약학과) 명예교수가 '마약류 중독, 단테 신곡에서 길을 찾다(투스)'를 출간했다.

9일 우석대에 따르면 이 책은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헌신해 온 저자가 단테의 고전 '신곡' 속에서 중독자의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를 해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책은 △마약류 중독자에게 주는 신곡의 메시지 △나의 베르길리우스 △베아트리체와 함께하는 단약 여행 △재발에 대하여 △중독에서 천국으로 △단약을 도와주는 안나지의 자세 등 총 6부로 구성, '신곡'을 접하지 않은 독자를 위해 부록에 '신곡의 줄거리'를 수록했다. 특히 약학자의 시선으로 풀어낸 이 책은 철학자나 문학자 중심의

기존 해석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하며, 중독자뿐 아니라 중독 회복자와 중독자 가족, 상담자, 봉사자 등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신태용 우석대 명예교수는 "단테의 여정을 따라가며 중독의 고통과 회복의 과정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다"며 "중독자와 그 가족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에듀페이 안착 '성공적'

올해 지원 대상자 1만1079명 설문... 85.3% "교육비로 잘 활용" 사용처로는 서점·문구점·안경점·문화체험활동·독서실 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북에듀페이'가 교육비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날 11~13일 3일간 2025년 전북에듀페이 지원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만1,079명 중 85.3%(9,445명)가 "교육비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매우 그렇다'가 59.4%(6,577명), '그렇다'가 25.9%(2,868명)로 나타나 전북에듀페이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에는 학생 2,275명(20.5%), 학부모 8,804명(79.5%)이 참여했다.

사용처로 서점(26.2%), 문구점(21.1%), 안경점(10.6%), 문화체험활동(10.2%), 독서실/스터디카페(9.3%) 순으로 집계됐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전북에듀페이가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비로 인식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이었다"며 "앞으로도 교육가족과 적극 소통하며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시설공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여름철 학교 시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전북교육청, 현장 점검 나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따라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법적 의무사항 전환... 준수여부 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시설공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는 지난 6월 1일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권고 사항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시설공사 현장에서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근로자 휴게 시설 설치, 수분 공급, 작업장 온도 관리, 휴식 제공, 개인 냉방 지원, 응급 대응 체계 등이 있다.

먼저, 체감온도 31°C 이상 작업장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온·습도계

를 비치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조치 방법을 교육하고, 작업 중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폭염작업 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작업발발 및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방지 대책과,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안홍일 시설과장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학교 시설공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